

남원시, 만인의총 유지 발굴조사 시작

개토제 개최... 조성 위치·무덤 세부 정보 등 파악해 보존·정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남원시는 25일 오전 11시에 개토제를 시작으로 만인의총 본 무덤인 의총 유지에서 시·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개토제(開土祭)란 천지신명과 지역 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조사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개토제가 열리는 의총 유지는 만인의총의 원래 자리로 정유재란(1597. 선조 30)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관리와 군사, 백성 1만여 의사의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시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셔 오다가 1963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의총은 지난 196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 당시 허술한 묘역을 보고 이장 검토를 지시해 1964년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시작에서 해제되었으나 1981년 다시 시작으로 재지정되었다.

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개토제는 남원향교(전교 김시열)가 고유제(告由祭)를 진행, 이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선열들의 흔적을 올바르게 찾아내고 후대



남원시는 25일 오전 11시에 개토제를 시작으로 만인의총 본 무덤인 의총 유지에서 시·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에 그 뜻을 온전히 전하려는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의총 유지 시·발굴조사를 통해 만인의총이 처음 조성된 위치와 무덤의 세부 정보 등을 파악하고 유구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공인 경영 안정 도모

순창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순창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군 단독 출연 방식에서 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동 출연하는 구조로 확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총 12억 5천만 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북도에서 1%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용자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

하는 제도다. 일반용자는 최대 5천만 원, 특례보증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점수 535점 이상의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체납자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조세로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일반용자 이차보전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과 순창출장소를 통해 접수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 지원

순창군이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에 본격 나섰다.

군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GAP 인증을 확대하고,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GAP 인증심사비 지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GAP 인증을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와 출장·사무관리비 등 심사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 보다 많은 농가의 GAP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GAP 인증을 유지하며 통합마케팅 조직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에는 GAP 표시가 포함된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GAP 전문인력(매니저) 운영비와 교육·컨설팅·영농일지 제작 등 이력관리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관광홍보부스' 본격 운영

순창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관내·관외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행사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군은 25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팔덕다용도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1회 순창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대회와 주요 관광지, 철도역 등에서 순창 관광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보부스에서는 순창을 찾은 선수단과 학부모,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광



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2인회 순창장류축제 홍보 △강천산·용굴산 등 주요 관광지 및 관광코스 소개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기념품 배부 등을 진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사업 시행

남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은' 개원과 연계하여,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남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1981.1.1.~2007.12.31. 출생자)으로, 부부 중 1명만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출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과 가전·가구 구입비 등이며, 100만 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팀(063-620-6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업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위한 정기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 18명과 간사 등 31명이 참가한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기후변화 대응 패션푸드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농업기술보급 35개사업, 농업지원사업 2개, 내수면분야 지원사업 11개사업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자리로 총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심의회의 목적은 사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전문적인 소양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대상자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심의회를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엔TV' MZ세대 대세 배우 이유진 출격

신규 콘텐츠 '최고의 한잔'

임실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실엔TV에 올해부터 MZ세대 대세 배우인 이유진이 전격 출연해 새로운 형태의 신규콘텐츠를 선보인다.

군은 최근 배우 이유진이 출연하는 임실엔TV 신규 콘텐츠인 '최고의 한잔' 촬영을 마치고, 이르면 3월부터 첫 선을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디지털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심차게 준비한 '최고의 한잔'을 온라인 소통전략을 전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은 채널 정체성을 한층 확장하기 위해 배우 이유진을 새 진행자로 발탁



하고, 지역의 모든 것을 품으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다룰 '최고의 한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배우 이유진은 유명탤런트 이효정씨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드라마였던 '멜로가체질', 인기예능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MZ세대 대세배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특히 그는 안정적인 연기력과 상황 대응능력,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공감형 진행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고의 한 잔'은 브이로그와 웹예능 형식을 결합한 스토리형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자가 임실 곳곳을 직접 찾아 사람과 재료, 공간의 이야기를 엮어 한편의 콘텐츠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지역의 정서와 가치, 공동체의 온기를 전달하는 감성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특히, 콘텐츠 전반에는 '사람 중심' 가치를 반영해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세대의 삶을 담아 임실만의 따뜻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학위수여식 거행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가 25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전경민 학과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재학생,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수료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화장품·뷰티 및 목철공예 산업 분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특화 산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난해 19명이 이어, 올해 총 23명의 졸업생이 학사



학위를 취득, 졸업생들은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4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지역 특화 산업의 핵심 인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추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임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전주매일 캠페인